

“건설 유관기관 협력 신규사업 추진 앞장”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황금 개의 해’로 불리는 2018년 무술년은 강원 건설산업이 발전·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 사업의 전략적인 발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강원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건설업체가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도시 재생사업·신규 인프라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각종 기반시설, 경기장 건설 등 올림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 건설인 모두가 올림픽 성공 개최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SOC사업 확대 노력 지역 균형발전 최선”



김대호 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도 지역의 종합경제단체로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역 현안과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들을 제안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규제개선, 중소기업 경영자문, 교육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제2경춘국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삼척~제천 고속도로, 태백선(영월쌍용~태백~삼척) 구간 ITX 고속철도, 중앙고속도로의 화천, 철원 연장 등 주요 SOC 사업 확대에도 적극 노력, 도내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토지역균형발전과 강원도가 향후 통일시대 주요 거점도시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건설협회 도회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5일 오전 10시30분 원주 아모르 컨벤션웨딩홀에서 ‘2018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강원건설산업의 도약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인사회에서는 건설산업에 기여한 회원사에게 표창·공로패를 수여한다. 회원사 자녀와 건설학과 우수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한다. 윤종현기자

※수상자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고.

오늘 대한건설협회 도회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가 주관하는 신년인사회가 5일 오전 10시30분 원주 아모르컨벤션 웨딩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날 홍천 진성종합건설 (대표 장관영) 등 지역 건설사들이 각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20개 회원사에 대한 표창, 공로패, 감사패 수여와 회원사 자녀와 도내 대학 건설 관련학과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된다. 신관호 ▶ 표창자명단 kado.net



2018 건설인 신년인사회 “도약의 한 해 되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최한 ‘2018 건설인 신년인사회’가 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 및 건설업계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 총리, 유주현 회장, 이원욱 국회의원 등이 건설안전을 다짐하며 건배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안윤수기자 ays77@

노후 철도시설 개량에 5년간 7.3兆 투입 국토부,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오는 2022년까지 낡고 오래된 철도시설의 개량에 총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개통한 지 30년 이상 지난 철도시설의 보수, 자연재해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철도시설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중점 투자대상이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철도시설은 개통 30년이 넘는 교량·터널과 내구연한이 지난 전기설비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노후화 속도가 빠른 만큼 국토부는 이번에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거쳐 개량투자 계획을 마련했다.

성능평가 결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A(우수)~E(불량)등급 중 C(보통)등급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토부는 이들 노후 철도

시설의 안전 확보와 기반시설의 성능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성능 고도화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을 4대 개량 투자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 중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데 4조109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철도 이용자와 작업

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1조2194억원, IoT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한 철도시설 성능 고도화에 1조4554억원을 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2018년 건설인 신년인사회

“건설산업, 한국경제 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선도하자”

유주현 건단련 회장 강조... 이낙연 총리 ‘기술 고도화’ 등 당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관계 인사 및 건설업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이원욱·윤영일·송석준·지상욱·김현아 국회의원,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년인사를 통해 “간 건설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는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 200만호 사업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출구가 될 것”이라며 “SOC 예산 감소를 우려했지만 그 예산은 적지않게 회복됐고 또 필요한 SOC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건설업계에 “건설기술의 고도화와 ‘건설 질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

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건설현장의 위험은 이대로 돌수 없는 단계”라며 “건축물의 안전과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가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건설업의 당면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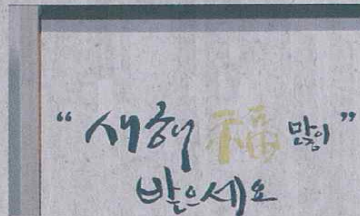
유주현 회장은 “올 한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시 한번 건설산업이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이 되도록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다양한 건설서비스 제공과 신시장 발굴, 대·중·소업체 간 상생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을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불량경쟁, 속도경쟁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해 달라”며 “다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기 위한 혁신 노력도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2018 건설인 신년인사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이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안운수기자 ays77@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 무효가 공동수급체에 미치는 영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계약에 위한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그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하여 입찰참가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의 입찰참가가 무효가 되는지 알아본다.

조달청이 공고한 공사에 A, B, C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C 회사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 국가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였다. 그 입찰 공고와 각종 규정이 포함된 공사입찰 설명서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위 공동수급체가 2011. 4경 실시된 실시설계입찰에서 적격심사 결과 2011. 6경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A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인 X와 Y 중 Y가 2011. 3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법인등기부상 말소등기가 마쳐졌음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상 대표자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위 입찰 당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상 A 회사의 대표자로 X와 Y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조달청장은 A 회사의 대표자 변경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 B, C 공동수급체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국가계약법령상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대표자를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입찰 이후의 후속 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

나 그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막는 한편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의 중복 또는 사위 입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만한 정형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A 회사의 입찰참가는 무효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어 그 구성원이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추 수 있는지 여부 등 일부 구성원의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공동수급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나머지 구성원들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Y가 A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이사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 X가 대표이사로서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X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상 A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A 회사에 생긴 하자나 나머지 회사들의 입찰 참가까지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조달청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통보는 A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결정).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